

## 국어 영역(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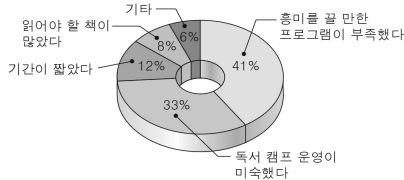
## 제 1 교시

1

[1~2] 다음은 ‘독서 캠프 개최’를 준비하는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도 이틀 동안 우리 독서 동아리 주관으로 독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저는 동아리 부원으로서 이번에 있을 독서 캠프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년도에 있었던 독서 캠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본 후,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캠프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한 후)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만족도가 낮았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함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흥미를 끌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독서 캠프 운영이 미숙했다는 답변이 33%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작가를 섭외하여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캠프 운영에서 가장 미숙했던 부분은 독서 후 활동인 독서 골든벨이 행사 첫날 진행되었다는 점과 진행 요원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 골든벨을 둘째 날 마지막 순서로 옮기고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 요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전년도 독서 캠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처음

- 발표 취지
  - 독서 캠프의 중요성 강조 ..... ①

## ○ 중간

- 문제 제기
  - 독서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제시 ..... ②
- 문제의 원인 규명
  -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부족 ..... ③
  - 독서 캠프 운영 미숙 ..... ④
- 해결 방안 제시
  -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마련
  - 독서 골든벨 순서 조정 및 진행 요원 확충 ..... ⑤

## ○ 끝 : 마무리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군.
- ②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군.
- ③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군.
- ④ 공식적인 말하기의 상황에 적합하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⑤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군.

3. 다음 대화에서 ‘민수’가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아: 민수야, 부채 박물관 다녀왔다면, 어땠어? 우리 조도 다음 미술 시간에 부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말해 줄 수 있겠니?

민수: 응, 아주 좋았어. 평소에도 부채는 단순하게 더위를 식혀주는 도구쯤으로 생각했는데, 박물관에 가서 직접 보니 그게 아니더라. 종류도 많고 부채에 담긴 의미도 다양했거든.

정아: 그래? 제일 기억에 남는 부채 하나만 이야기해 줄래?

민수: 음, 나는 ‘벽온선’이라는 부채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너 혹시 벽온선이라는 부채 아니?

정아: 어, 단오 때 서로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부채를 교환했다고 들어. 남원 지방에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주고받은 것에서 유래되었대.

민수: 그래?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정아: 그럼 네가 박물관에서 알게 된 내용은 뭔데?

민수: 내가 벽온선에 대해 박물관에서 알게 된 사실은 벽온선이 병을 옮기고 다니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부채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넌 그 설명을 어디서 들어?

정아: 다른 반 친구 기현이한테 들어.

- ①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② 감정적 호소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③ 내용이 사실 판단에서 한쪽에 치우쳤는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④ 내용이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⑤ 자료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준: (화가 난 표정으로) 가람아! 지금 몇 신 줄 알아? [A]  
 가람: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4시잖아. 왜?  
 성준: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가람: ㉠ 어머, 정말? 난 4시로 알고 있었어. 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성준: ㉡ (아이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정말 너무해. 난 분명히 3시라고 했어. 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B]  
 가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미안해. 일부터 그런 건 아니야. 어제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네 말을 잘못 들었나봐. [C]  
 성준: ㉢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아까 아무렇지도 않게 4시라고 해서 솔직히 화가 났었어. 은정이 생일 파티에 늦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가람: ㉣ 미안, 난 정말 네가 몇 시인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  
 성준: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 빨리 생일 선물 사러 가자. 선물로 뭐가 좋을까?  
 가람: 음, 요즘 우리 반 여자애들 보니까 예코백 많이 갖고 다니던데. [D]  
 성준: 예코백? 그게 뭐데?  
 가람: 어, 천으로 만든 가방 있잖아.  
 성준: 아, 그게 예코백이었어? 그럼 ○○ 상가에 갈까?  
 가람: ㉤ △△ 상가에서 할인 행사하던데.  
 성준: 그럼 △△ 상가로 가자. 너 피곤해 보이는데 버스 타고 갈까? [E]  
 가람: 그러지 뭐.

4. 위 대화에서 [A] ~ [E]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A]: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② [B]: 청자의 경험이 화자의 발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C]: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D]: 의사소통 참여자의 배경지식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E]: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즉각적인 상호 반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발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발화에는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자는 대화의 맥락을 통해 이를 추론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보기>는 작문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할 때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포트폴리오\*에는,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교내·외에서 한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되 '남'과는 다른 '나'를 진솔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점과 자신의 실적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진학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의 기본 정보, 사진 등과 같은 관련 자료, 구체적인 내용 또는 동기나 목적 등이 포함된 활동 내용, 자신의 느낀 점 등을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눠준 <양식>을 활용하여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각자 구상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양식>

|              |              |                                                                                                                                                |  |
|--------------|--------------|------------------------------------------------------------------------------------------------------------------------------------------------|--|
| 기본 정보<br>(㉠) | 활동명<br>(도서명) |                                                                                                                                                |  |
|              | 활동 구분        | <input type="checkbox"/> 봉사 <input type="checkbox"/> 동아리 <input type="checkbox"/> 체험 <input type="checkbox"/> 독서 <input type="checkbox"/> 방과 후 |  |
|              | 활동 일시        |                                                                                                                                                |  |
|              | 활동 장소        |                                                                                                                                                |  |
| 세부 내용        | 관련 자료<br>(㉡) | 활동 내용<br>(㉢)                                                                                                                                   |  |
|              |              |                                                                                                                                                |  |
| 느낀 점<br>(㉣)  |              |                                                                                                                                                |  |

\* 포트폴리오 (portfolio):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성과물이나 활동 과정 등을 정리한 자료집.

- ① 저는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이 꽤 많은 편인데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은 유아교육이므로 (㉠)에는 봉사활동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적되, (㉡)에는 보육 시설 등에서 활동한 사진을 선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②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방과 후 활동으로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빵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에는 제가 요리 과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는지 적어 보려고 합니다.
- ③ 저는 건축학파에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건축 박람회에 가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체험활동 관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과 (㉢)에 다양한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와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 ④ 저는 이공 계열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과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편이라 이를 바탕으로 독서활동 관련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는 책의 제목과 책을 읽은 날짜나 기간을, (㉢)에는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적어 보려고 합니다.
- ⑤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서, 지난 축제 때 전시했던 제 작품을 바탕으로 동아리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저는 풍경화에 자신이 있으므로 (㉡)에 제 그림과 실제 풍경 사진을 나란히 배치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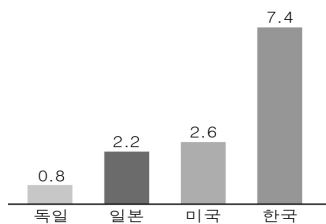
7. 다음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보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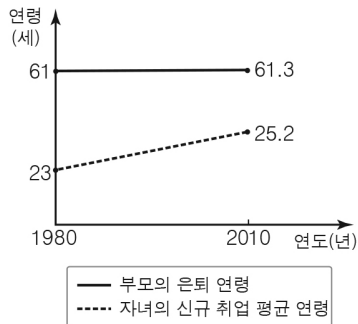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독립시킨 후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2010년 기준으로 8.7년이다. 일본 12.4년, 미국 15년에 비해 매우 짧으며, 은퇴 연령 역시 이들 나라에 비해 낮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나) 통계 자료

(나)-1 : 주요국의 가계 소비 중 교육비 비중 (%)



(나)-2 : 부모의 은퇴 연령과 자녀의 신규 취업 평균 연령의 추이



(다) 연구 자료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실시, 청년 취업을 위한 지원 그리고 정년 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① (가)를 활용하여, 부모 세대의 은퇴 준비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이 부모 세대가 은퇴 준비를 하는 것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가)와 (다)를 활용하여, 정년 연장이 부모 세대가 노후 준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④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자녀의 신규 취업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높기 때문임을 주장한다.
- ⑤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자녀들의 신규 취업 평균 연령 증가가 은퇴 준비에 부담 요인이 되므로 청년 취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8. 다음은 학교 신문에 실린 '겨울철 건강 관리'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조건에 따라 캠페인 문구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겨울이 되면 주변에 감기에 걸린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만 실천한다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선 겨울 방학 중에 춥다고 실내에서만 생활하지 말고 적절하게 실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를 하는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더운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실외로 나가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해주면 더욱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보 기 >

- 글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천을 권유할 것.
- 의인법과 직유법을 사용할 것.

- ① 실내에서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에서 아름다운 산을 만끽하며 그 속을 걸어 보세요.
- ②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방 안에 있는 당신을 감싸 주세요. 온기가 주는 사랑을 오랫동안 느껴 보세요.
- ③ 집안에서만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도나요? 지금 밖으로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힘껏 달려 보세요.
- ④ 실내의 탁한 공기가 오늘도 당신을 맞이하네요. 자주 창문을 열어 맑고 상쾌한 공기로 건강을 지키세요.
- ⑤ 갑작스러운 감기의 방문으로 고생하시나요? 손을 씻는 작은 습관 하나로 불청객 같은 감기를 예방하세요.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작문 과제

교지 투고란에 ‘후배를 격려하는 글’을 써 보자.

###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수행할 과제는 교지 투고란에 ‘후배를 격려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격언이나 속담, 위인들의 일화 등을 찾아보고 그 중 하나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후배들이 친근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려 그 때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내 모습을 덧붙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 학생의 글

저는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 학교 성적 하락과 자격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동아리에서 노인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기소침해 있던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 저는 평소 책 읽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할머니들께서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내내 행복해하셨고, 저의 손을 꼭 잡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 위축되어져 있었던 저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작은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뒤, 교내 토론대회와 전국 이야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매사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 저같이 겪더라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② 예상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을 제시한다.
- ③ 내용을 고려하여 공간적 순서에 따라 글을 조직한다.
- ④ 다른 글을 참조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 ⑤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학교 성적이 하락하고 자격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로 고쳐야겠어.
- ②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위축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고쳐야겠어.
- ⑤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저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로 고쳐야겠어.

11. 다음은 음운 현상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학습 활동

아래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제시된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음운 변동이란, 환경에 따라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발음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음 ‘ㄱ, ㄷ’이 ‘ㄴ’이나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으로 발음되는 등의 ‘자음동화’, ‘ㄷ, ㅌ’이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ㄲ, ㄺ’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음절 끝에 위치한 ‘ㅅ, ㅈ’이 각각 ‘ㄷ, ㄱ’으로 발음되는 등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같은 것이 모두 음운 변동의 사례에 해당한다.

굳이, 꽃, 부엌, 곡물, 속는다, 만머느리

(질문 1) 인접한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이 변했나요?

- ① 예 (     )
- ② 아니오 ( ㉠ )

(질문 2)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했나요?

- ① 자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 ㉡ )
- ② 모음의 영향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 ① 굳이, 부엌    | 꽃, 곡물         |
| ② 속는다, 만머느리 | 굳이, 곡물        |
| ③ 꽃, 부엌     | 굳이, 속는다, 만머느리 |
| ④ 굳이, 꽃     | 부엌, 속는다, 만머느리 |
| ⑤ 꽃, 부엌     | 곡물, 속는다, 만머느리 |

12.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뉠 수 있다. 실질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며,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형식형태소는 높임, 의문, 시제, 추측, 진행상 등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며, 선어말어미나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보 기 >

- 나는 어제 스파게티를 ㉠ 먹었다.
- 얼마 만에 보는 맑은 ㉡ 하늘이냐?
- 지금은 그 행사가 이미 ㉢ 끝났겠군.
- 손목시계를 ㉣ 보면서 교실로 향했다.
- 할머니는 연세에 비해 참 ㉤ 고우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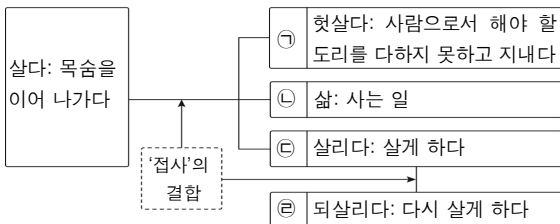
- ① ㉠의 '먹-'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의 어간이므로 실질형태소이다.  
 ② ㉡의 '하늘'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실질형태소이다.  
 ③ ㉢의 '-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④ ㉣의 '-면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⑤ ㉤의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므로 형식형태소이다.

13.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선생님:** 우리말의 접사에는 어근의 앞에 결합되는 접두사가 있고, 어근의 뒤에 결합되는 접미사가 있습니다. 접사는 어근의 뜻을 한정해 주거나 품사를 바꾸어 줍니다. 또한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접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다음의 학습 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학습 과제



- ① ㉠의 '헛-'과 ㉢의 '되-'는 어근의 뜻을 한정해 주는군.  
 ② ㉡의 '-ㅁ'은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군.  
 ③ ㉢의 '-리-'는 어근과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만들어 주는군.  
 ④ ㉣의 접두사 '되-'와 접미사 '-리-'가 하나의 어근에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어 주는군.  
 ⑤ ㉠의 '헛-'은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이고, ㉢의 '-ㅁ'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이군.

14.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새 책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성분  
 ① 관형사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안긴문장(절):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함

① 관형절: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절), 이때 관형절은 '-(으)ㄴ' '-는'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함.  
 예) '무소유'는 내가 읽었던 책이다.

### < 보 기 >

- ㄱ. 어느 지역이든 **유명한** 관광지는 있기 마련이다.  
 ㄴ. 내가 **산** 꽃을 **그녀의** 화단에 옮겨 심었다.  
 ㄷ. 나는 **동전 다섯** 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① ㄱ의 '유명한'은 명사 '관광지'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② ㄴ의 '그녀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명사 '화단'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③ ㄴ의 '산'은 '사다'의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내가 산'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④ ㄷ의 '다섯'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이므로,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⑤ ㄱ의 '어느'와 ㄷ의 '그'는 모두,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자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담화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에 따라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눌 수 있다. 문어 담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신문 기사가 있고, 구어 담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일상 대화가 있다.

〈보기 2〉

(가) 신문 기사

택시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돈을 되찾아 준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씨(42세)는 지난 달 14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택시에서 현금 120만 원과 수표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 후, 승객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인근 경찰서로 가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다. 이후 가방을 되찾은 승객은 ○○○씨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씨는 오히려 당연히 할 일을 했이라며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나) 대화

A: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B: 뭐?

A: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돈 찾아 줬대.

B: (의아한 표정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A: 아니, 승객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사례금을 줬는데도 안 받고.

B: 정말? 대단하네, 그 사람.

A: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난 이런 기사 읽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 ① (가)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의 체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의 ‘대단하네, 그 사람.’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서는 어순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는군.
- ③ (나)에서 ‘그런데’를 ‘근데’로, ‘나는’을 ‘난’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는 줄임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 ④ (가)에 비해 (나)는 조사나 주어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에 비해 구어 담화에서는 문법 요소들이 자주 생략됨을 알 수 있군.
- ⑤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가 구어 담화에 비해 정보의 기록성과 보관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군.

[16~17] 다음은 독서 수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여러분, 글을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나 문장 등의 문맥적 의미, 글의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독해라고 하고, 문맥을 통해 생략된 내용이나 필자의 의도 등을 짐작해 보는 것을 추론적 독해라고 하며, 글에서 공감하거나 반박할 부분을 찾고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것을 비판적 독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읽기 자료에 적용해 볼까요?



[읽기 자료]

나는 여섯 살 때부터 독서할 줄을 알아 이제 30여 년이 되었다. 대개 일찍이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 일에 뜻을 두었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여 무릇 제자백가, 술수서에서 패관잡기와 황당무계하고 자질구레하며 불경스러운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닥치는 대로 마구 읽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옛것을 상고하는 경전과 세상을 다스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도리어 공부할 겨를이 없었다. 중도에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비로소 점차로 간략함을 따랐다. 그러나 총명함이 미치지 못함이 개탄스럽고 **나이가 따르기 어려움**을 **느꼈다**. 매양 곳곳이 앉아서 책을 어루만질 때마다 멍하게 회한이 남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 동생 현중 역시 학문에 뜻을 두어, 경사(經史)의 여러 서적에 대해 대략을 섭렵하였다. 문장을 짓는 것이 거침없고 끝이 없다. 진실로 힘쓰고 게으르지 않으면 앞으로 성취할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중은 재주가 높고 민첩하여 그것을 얻기는 아주 쉽지만 나는 그가 스스로 만족하여 중도에 그칠까 두려워하고, 또 **그가 나처럼 마구 읽어서 요령을 얻지 못할까 염려된다**.

**이에** 무릇 내가 일찍이 읽어서 감명을 받은 것과 또 대개 읽고 싶었지만 읽지 못한 책을 취하여 그 **제목**을 **나열**하고 **그 대강의 내용을 기록**하여 현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친하의 책 가운데 볼 만한 것이 아주 많으니 너는 바라건대 번다한 도서의 마구잡이 독서를 면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 홍석주, 「홍씨독서록」 중에서 —

16.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행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문단의 ‘요령’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글이 독서를 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1문단의 ‘나이가 따르기 어려움’이라는 구절은 문맥적으로 올바른 독서방법을 깨닫기에는 ‘동생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③ 2문단의 ‘그가 나처럼 마구 읽어서 요령을 얻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동생의 독서 상황을 걱정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추론할 수 있군.
- ④ 3문단의 ‘이에’라는 단어를 통해 ‘이에’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글의 전개 방식임을 알 수 있군.
- ⑤ 3문단의 ‘제목’을 나열하고 그 대강의 내용을 기록하여 동생에게 독서 목록까지 전하는 것은 오히려 동생의 주체적인 독서를 방해할 수도 있겠군.

17. ‘읽기 자료’의 글쓴이가 동생에게 권유한 독서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책을 선별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③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핵심 내용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⑤ 궁금한 점은 스스로 질문을 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요인들과 소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소비이론이라고 ㉠ 부른다. 케인즈는 현재 얻고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절대소득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여 현실의 소비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프리드만은 처분가능소득을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을 설명하는 항상소득이론을 제시했다. 항상소득은 정기적 소득을,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을 뜻한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가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얻을 소득을 기대하고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항상소득이론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항상소득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딜리아니 등이 제시한 생애주기 이론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애주기이론은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론과 차이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소비하기보다는 청년기의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된다. 또한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지만 중·장년기에 저축한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소비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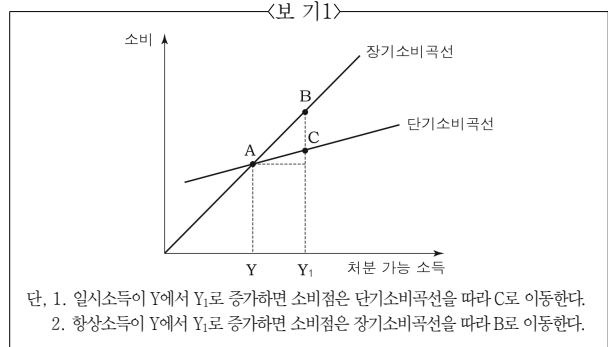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은 케인즈의 소비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소비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소비성향: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

18. 밑줄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이론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 <보기1>은 항상소득이론에 따른 소비성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글과 <보기1>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2>
- ㄱ.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모두 Y에서 Y<sub>1</sub>로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 폭은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크다.
  - ㄴ. 소비점이 A에서 B로, A에서 C로 각각 다르게 이동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에 따른 결과이다.
  - ㄷ. 불황기라도 항상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기보다는 A에서 C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 ㄹ. 일시소득이 Y에서 Y<sub>1</sub>로 증가할 때 소비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고, A에서 C로 이동하는 이유는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위글을 이해한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올해부터 ‘갑’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이전보다 3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의 최근 영업 실적이 좋아져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중 20만 원을 소비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저축하였다.
  - 유명한 배우인 ‘을’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다. 얼마 전 그는 TV에 출연하여, 무명배우로 지냈던 청년 시절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된 중년 시절의 삶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의 소비수준이 무명배우였던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 ① 절대소득이론으로는 처분가능소득이 낮았던 ‘을’의 청년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의 소비수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군.
- ② 생애주기이론으로는 ‘을’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의 소비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겠군.
- ③ 생애주기이론을 참고할 때, ‘을’이 중년 시절에 소비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던 것은 은퇴 이후의 소비를 고려한 행위이겠군.
- ④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보너스로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은 보너스를 일시소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로군.
- ⑤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승진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리지 않은 것은 꾸준한 소득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로군.

21. 밑줄 친 단어 중,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손님을 잔치에 부른다.  
 ②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③ 그 가게는 값을 비싸게 부른다.  
 ④ 소란스러운 거리에서 그녀를 부른다.  
 ⑤ 이 문화재를 청동사자상이라고 부른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DNA, 핵산 등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질소는 대기 성분의 78%를 차지하며, 분자 단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양 속 알갱이 사이에도 풍부하다. 그러나 자연 속에 존재하는 분자 형태의 질소는 매우 안정되어 있어 식물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 두 개의 강력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질소 분자에 수소를 첨가시켜 질소 원자 간의 결합을 끊어 질소를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처럼 질소 분자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질소 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 고정 효소가 없으므로 이 효소를 가진 세균에 의해 질소 고정이 이루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콩과 식물\*과 뿌리혹 세균의 공생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뿌리혹 세균에 의한 콩과 식물의 질소 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균 침입과 뿌리혹 형성 및 산소 농도 조절 등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콩과 식물은 뿌리털에서 화학 신호를 방출하여 토양에 사는 뿌리혹 세균을 유인하고, 유인된 세균은 뿌리혹 형성 인자를 분비하여 뿌리털을 구부러지게 만든다. 뿌리혹 세균은 뿌리털의 구부러진 공간에서 증식하면서 뿌리털 세포벽의 일부를 분해하여 뿌리털 안으로 침입한다. 이후 뿌리혹 세균은 감염사(感染絲)\*를 만들면서 피층 세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일종의 통로를 마련하여 세포를 감염시키게 된다.

이때 피층 세포 안으로 침입한 뿌리혹 세균은 운동량이 적어지고 크기가 커진 ‘박테로이드’라는 세균 형태로 변화한다. 박테로이드는 성장호르몬을 분비하여 감염된 세포의 분열을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감염된 세포가 증식하여 개수가 늘어나면 뿌리 밖으로까지 공간을 확장하여 혹과 같은 모양으로 비대해지는데 이를 ‘뿌리혹’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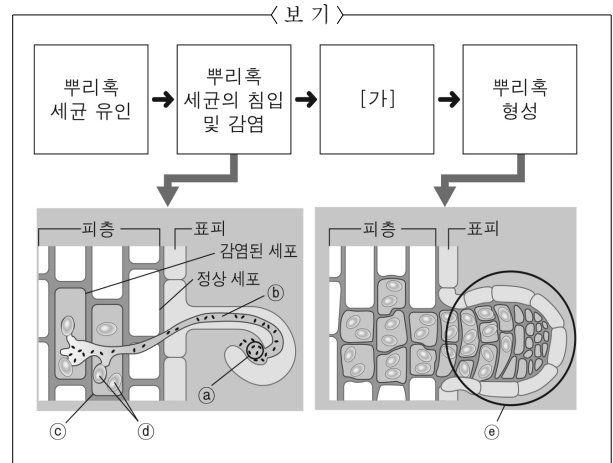
그런데 박테로이드 속에 있는 질소 고정 효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희박한 환경이어야 하지만 박테로이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반대여야 한다. 따라서 박테로이드는 ‘레그헤모글로빈’을 합성해냄으로써 뿌리혹 내부의 산소 농도를 조절한다. 레그헤모글로빈은 세포로부터 박테로이드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박테로이드가 호흡할 만큼 충분한 양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 하지만 레그헤모글로빈은 질소 고정 효소가 불활성 되지 않을 만큼 낮은 농도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박테로이드 내부의 산소 농도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질소 고정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콩과 식물은 박테로이드가 안정적으로 살아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박테로이드는 질소 고정을 한 후 생성된 질소를 식물에 제공함으로써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콩과 식물: 콩과에 속하는 식물.

\* 감염사(感染絲): 뿌리털 세포의 세포막이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 길게 만들어진 관모양의 구조.

※ <보기>는 뿌리혹 형성 과정을 도식화한 후 그 과정의 일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참고하여 22번과 23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감염사의 형성  
 ② 피층 세포벽의 분해  
 ③ 뿌리혹 세균의 증식  
 ④ 뿌리털의 화학 신호 방출  
 ⑤ 감염된 피층 세포의 분열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비해 ㉣은 운동량이 적고 크기가 크겠군.  
 ② ㉡와 같은 상태가 되려면 ㉠이 ㉢을 통해 이동하여야겠군.  
 ③ ㉠이 성장호르몬을 분비하면 ㉢의 개수도 많아지겠군.  
 ④ ㉡에서와 달리 ㉢에서는 뿌리혹 형성 인자가 분비되었겠군.  
 ⑤ ㉢에서 질소 고정 효소의 작용으로 식물이 질소를 사용할 수 있겠군.

24.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이 글을 읽어 보니, 박테로이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 A )가 필요하고 질소 분자의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 B )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수소 | 산소 | ② | 수소 | 질소 |
| ③ | 산소 | 수소 | ④ | 산소 | 질소 |
| ⑤ | 질소 | 수소 |   |    |    |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가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 등과 정면충돌하게 되면 운전자는 핸들이나 유리 등 차체 내부에 부딪히게 된다. 이 때 발생한 큰 충격력에 의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물론 안전벨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어백이다. 그렇다면 에어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동하게 되는 것일까?

운전석 에어백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가 정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에너지는 차량 앞쪽의 좌, 우 하단에 각각 설치된 충돌센서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하단에 설치된 전자제어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안전센서에 의해 동시에 감지된다.

충돌센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전기-기계식 충돌센서인데, 그 구조는 <그림>과 같다. 충돌센서의 롤러는 평상시에는 고정되어 있지만 충돌이 발생하면 구르게 된다. 이로 인해 롤러에 부착된 회전접점이 고정접점과 접촉하여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제어장치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때 두 개의 충돌센서 중 한 개만 작동해도 전기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전자제어장치가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안전센서도 전기 신호를 보내야 전자제어장치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① 안전센서는 그 구조 및 작동 원리가 충돌센서와 동일하나, 자동차 앞부분을 기준으로 충돌센서보다 더 뒤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충돌센서가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더 커야만 전자제어장치에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은 안전센서가 필요한 이유는 충돌센서만으로 에어백이 작동될 경우, 오히려 에어백에 의해 운전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충돌에 의해 충돌센서와 안전센서로부터 전기 신호가 전자제어장치로 전달될 경우, 전자제어장치는 이를 심각한 충돌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점화장치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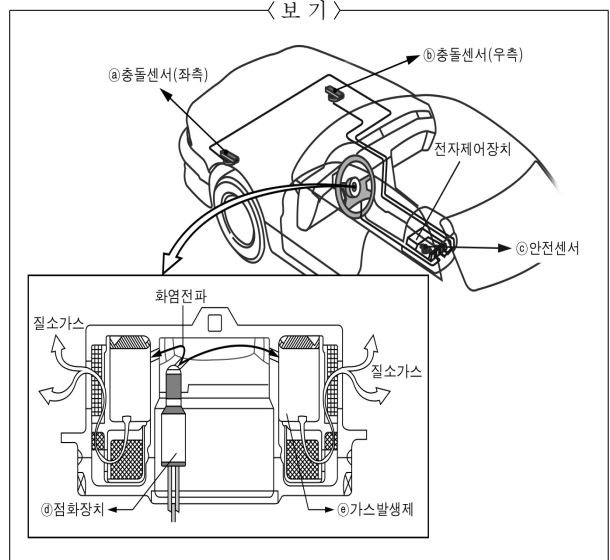
한편 점화장치는 일종의 화약과 같은 점화제와 이를 폭발시키기 위한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제어장치로부터 전달된 신호가 점화장치의 필라멘트를 가열시켜 점화제가 폭발하여 화염이 발생한다. 이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한 화염은 가스발생제로 전달된다. 가스발생제는 아지드화나트륨과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염으로 인한 높은 열에 의해 아지드화나트륨이 나트륨과 질소로 분해되어 질소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때 산화철은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촉진될수록 아지드화나트륨의 분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질소 가수도 급속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 질소가스는 공기 주머니로 유입되고 공기 주머니, 즉 에어백은 순식간에 팽창하게 되는 것이다.

25.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어백이 작동되는 시점을 예측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② 에어백이 작동되는 조건을 한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③ 에어백이 작동되는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④ 에어백이 작동되는 순서를 판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⑤ 에어백이 작동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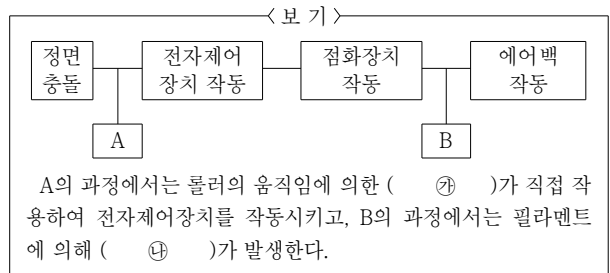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작동되지 않더라도 ㉡와 ㉢이 작동된다면 전자제어장치는 작동될 수 있겠군.
- ② ㉡와 ㉢이 작동되더라도 ㉢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전자제어장치는 작동될 수 없겠군.
- ③ ㉠이 단독으로 작동될 때 받는 충격의 강도보다 ㉡와 ㉢이 동시에 작동될 때 받는 충격의 강도는 작겠군.
- ④ ㉡와 ㉢ 각각의 내부에서 회전접점과 고정접점이 접촉해야 전자제어장치가 점화신호를 ㉣에 보낼 수 있겠군.
- ⑤ ㉤로부터 높은 열이 전달되더라도 ㉤에 산화철이 없다면 질소 가스의 발생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겠군.

2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에어백 작동에 관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의 과정에서는 롤러의 움직임에 의한 ( ㉠ )이 직접 작용하여 전자제어장치를 작동시키고, B의 과정에서는 필라멘트에 의해 ( ㉡ )가 발생한다.

- |   |        |        |
|---|--------|--------|
|   | ㉠      | ㉡      |
| ① | 전기 에너지 | 열 에너지  |
| ② | 운동 에너지 | 열 에너지  |
| ③ | 전기 에너지 | 운동 에너지 |
| ④ | 열 에너지  | 전기 에너지 |
| ⑤ | 운동 에너지 | 전기 에너지 |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철학의 바탕에는 ‘도(道)’에 관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나 도에 대한 관점은 사상가들마다 다르다.

우선, ㉠ 공자가 말하는 도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한다. 도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인 ‘예(禮)’에 의해 실천된다. 객관화된 인간의 행동규범이 예이고 그 예의 성립근거가 ‘도’이므로 도는 일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즉, ‘도’는 인간의 자기 자각과 훈련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 공자는 이런 자기 자각과 훈련을 통해 이룩한 도가 실현된 사회를 꿈꾸었다. 그 사회는 법제도보다는 인격, 형벌보다는 감화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였다. 그는 ‘정치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이나 면하려 들지 수치를 모르게 된다.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수치를 알고 또 올바르게 된다.’고 하여 예와 덕으로써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자는 앞서 공자가 주장한 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의식을 개혁하려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다. 노자는 도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큰 도를 찾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를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이라 보고, 이는 인간이 한정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규정할 수 없는 ‘무’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것에 의존하거나 무엇에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한다고 하고, 그러한 성질을 ‘자연’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즉, ㉢ 노자의 도는 공자의 인위적 규범인 도와 달리 자연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한비자는 공자의 도와 그 도가 실현된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공자에서 비롯된 유가의 길치레를 비판하고 엄격한 형벌의 집행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격을 통한 감화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없다고 보고, 법만이 천하의 가장 좋은 도라 주장하였다. 그는 유교의 원리로는 자식 교육도 기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건달 아들을 바로잡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스승의 교육이 아니라 엄격한 부랑자법과 몽둥이를 든 형졸이며, 인격과 학문은 무력한 데에 반해 힘과 권위는 실질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에 대해 공자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노자는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 한비자는 법 자체라고 본 것이다. 이로 보아 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여러 사상가들이 연구해 왔던 동양철학의 근저임을 알 수 있다.

28. 밑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올바른 삶의 길  
- 무위를 따르려한 사상가들
- ② 인격 배양의 길  
- 노자와 비교되는 공자의 길
- ③ 동양철학에서의 ‘도’  
-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 고찰
- ④ ‘도’를 따르는 삶  
- 노자와 한비자의 서로 다른 생애
- ⑤ 동양 사상의 핵심  
- 공자와 한비자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인간의 내면에서 유래한다.
- ② ㉠과 달리 ㉡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 ③ ㉠과 달리 ㉠은 인간이 없어도 성립된다.
- ④ ㉠과 달리 ㉠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다.
- ⑤ ㉠, ㉡은 모두 인간의 제도적 규범을 의미한다.

30. 밑글을 읽은 학생들이 ㉣, ㉤의 입장에서 &lt;보기&gt;에 대해 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lt; 보 기 —&gt;

조선 시대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발길에 채여 하룻밤 만에 죽었다. 하지만 이 형제의 아버지를 발로 찬 당사자는 잠적하였다. 이에 분노한 형제는 아버지의 원수를 추적하여 끝내 죽이고 말았다. 당시 법조문에 따르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그러나 왕은 법조문을 이 형제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왕명을 내리고 이들 형제의 효성을 치하하며 형제를 풀어주었다.

- ①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은 백성들을 덕과 예로써 다스리려 한 것이군.
- ②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은 형벌보다는 인격을 통하여 백성들을 감화시키려 했군.
- ③ ㉣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도리를 깨우치고 있으니 다른 형벌은 필요 없을 것 같군.
- ④ ㉤의 입장에서 본다면 왕이 법조문을 따르지 않은 것은 인간이 이기적 존재임을 간파한 것이군.
- ⑤ ㉤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격하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왕의 판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림  
㉠ **받이**  
알콧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A]

걸어온 길가에 쫓겨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B]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 **받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 주셨지  
줄음줄음 귀박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C]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뱃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아롱범: 표범.

\*우라지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마우제 말: 러시아 말.

\*귀성스럽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인화를 통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은 이국땅을 떠도는 화자가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항구를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구에서 화자는 후회 없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 실현되기 힘든 현실을 인식하며 시상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 시의 짜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감상을 말해 볼까요?

| [A]    |   | [B]        |   | [C]    |
|--------|---|------------|---|--------|
| 현재의 부두 | → | 과거 회상 속 고향 | → | 현재의 부두 |

- ① [A]의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를 통해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 ② [B]의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을 통해 어린 시절 화자에게 우라지오는 동경의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 ③ [C]의 '얼음이 두껍다'와 '가도오도 못할'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인식함을 추측할 수 있어요.
- ④ [A]의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C]의 '날고 싶어 날고 싶어'를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요.
- ⑤ [C]의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를 통해 [B]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시간, ㉡은 정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과거를 성찰하게 하는 시간, ㉡은 가슴 아픈 과거를 잊게 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③ ㉠은 현재 화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시간, ㉡은 과거 속 화자의 기대가 높았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④ ㉠, ㉡은 모두 화자의 심적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 ⑤ ㉠, ㉡은 모두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안도 안주의 김석곡은 부인 왕씨와의 사이에 아들 인형과 딸 인향, 인함을 얻는다. 왕씨 부인이 병을 얻어 죽은 후 간악한 정씨가 삼 남매의 계모가 되었는데, 그들은 정씨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게 되면서 그녀를 경계한다. 특히 인향을 미워한 정씨는 인향에게 배가 불러오는 약을 먹인 후, 외인과 통혼하여 임신을 하였다 고 모함하고, 이에 좌수 김석곡은 크게 노하여 인형에게 인향을 잡아 오라고 시킨다.

좌수 이리하여 ‘인향을 잡아 오라’하니, 인형이 황망히 들어가니, 이 때 인향 소저 인함을 데리고 바느질만 하며 모친을 생각하더니, 오라비 인형이 들어오는 양을 보고 반겨 내달으니, 천만 의외에 오라비 불변안색하고 이르되,

“누이야,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우리 삼 남매 모친을 일찍 이별하고 슬픔을 금치 못하는 중에 모친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심중에 맺혀, 계모에게 행여 득죄할까 염려하고 지내더니, 어찌하여 네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이를 배었던 말이 원근에 낭자하여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라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잡아오라’ 하시니, 진실로 실행함이 있느냐? 네 몸을 본즉 잉태한 것 모양 같으니, 신병으로 그러한지 모르거니와 이런 변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이나!”

하고 실성통곡을 하며 이르되,

“너를 죽이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밖으로 나와 좌수 앞에 꿇어 앉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후일 무슨 일이든지 소자가 담당하오리다.”

하고 애걸복걸하는 말이,

“후원에 가 인향을 보은 즉 신병이 중하였사오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후일 무슨 일이 있으면 소자가 담당하겠사오니, 죄당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마 잡아오지 못하였사오니 그저 살려 주옵소서.”

이 때 좌수 발연 대노하며 일변 춘삼을 불러 왈,

“후원에 가 인향 소저를 잡아오라.”

하니 춘삼이 수명하고 후원 인향당에 들어가 인향을 풍우 같이 잡아온지라.

이 때 인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병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따라 나와 부친 앞에 꿇어앉으니, 좌수 진노하여 왈,

“삼 남매를 애지중지하여 사랑하더니, 너의 모친이 기세(棄世)\* 이후로 더욱 불쌍히 여기어 차차 장성한 후에 유수 태과 혼례를 하고자 하였더니, 그 간에 이 같은 집안이 망할 일이 생하였으니, 세상에 어찌 의관을 하고 출입하리오. ㉠ 그 말이 읊촌에 자자하여 너로 하여금 용납지 못하게 되었으니, 너를 죽여 종적을 감추리라.”

하며 호령이 추상(秋霜) 같으니, 인향이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어져 혼절하여 어찌되는 줄 모르다가 식경 후에야 정신을 차려 여쭙되,

“아버님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계모님이 들어오신 후로는 후원 초당에 있어 형제 의지하고 있사와 계모 시키는 대로 주야 일만 하며, 혹 추호라도 득죄할까 염려하고 일시라도 조심을 극진히 하옵더니, 천만 외에 이런 화를 당하오니 그 중에도 몸에 병이 있사와 문밖출입을 못하였기에 룡 안의 든 새와 같았고, 동기간 오래도록 우금(于今) 오 년 동안을 보지 못하였사온데, 하물며 외인을 상대하였사오리까? 또한 여자의 몸으로 실행하여 몸이 이렇듯이 잉태를 할진대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천지간 죄인이 어찌 용납하오리까? 죽기는 원통한 바 없사오니 더러운 누명을 입사오니, 철천지한(徹天之恨)이로소이다. 널리 통촉하옵소서.”

좌수 더욱 분노하여 왈,

“간악한 뜻을 품을 줄을 어찌 알았으리오. 부모를 속이니, 이는 천지의 대간인(大姦人)\*이라. 뉘 앞에서 발명코자 하느냐?”

하며 호령이 추상 같으니, 인향이 할 일 없어 어미를 부르며 통곡하는지라.

정씨 손뼉을 치며 하는 말이,

“내가 낳은 자식이면 당장에 때려죽일 터이지만, 이 내 팔자 기박하여 남의 후취된 연고로 이런 변괴가 있어도 생사 간을 말할 수가 없으니, 좌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또한 양반의 자식이 되어서 불효가 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집안을 망케 하였으니,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보지 않음이 마땅하다.”

하거늘, 좌수 더욱 분기 대발하여 칼로 서안을 치며,

“너를 당장에 죽여 분을 풀 것이로되, 동네가 요란하겠기로 심천동 연못에 넣어 종적을 없이 하리라.”

하고 인형을 불러 왈,

“네 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심천동 연못 속에 넣고 오라.”

< 중략 >

이 때 인향이 오라비를 따라가며 하는 말이,

“아버지는 소녀의 말씀을 다시 들어 보소서. 소녀 전생의 죄악이 지중하여 그러한지, 하늘이 밋게 여겨 그러한지, 천지간의 원악한 귀신이 되오니, 황천에 돌아가도 이 누명을 벗지 못할까 하나이다. 세상에 있어서는 인류에 섞이지 못하겠사오니, 이렇듯이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백옥 같이 무죄 하옵고 수정 같이 맑사오니, 부친의 엄명이 이렇듯이 지중 하옵시나, 부친은 널리 통촉하옵소서. 어머니 별세 후에 계모를 맞이했사와도 슬픈 회포를 잊지 못하옵더니, 천형으로 어진 계모를 만나 일신이 편하옵더니, 계모 친 소생을 낳은 후로 마음이 점점 변하여 우리 형제 뒷방에 갇혀 있어 부녀간에 의가 끊어지고 또한 형제간에 생이별을 하고 이와 같이 백 배 애매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오니, 죽은 혼신인들 어찌 완전하오리까? 어린 동생을 의지하여 지내다가 이제 죽어지면 우리 인함이 배고픈들 뉘가 알리오. 제 경상 그 아니 가련한가, 인함이나 어찌매 여기서, 박천 태 외가로 나 보내시면, 제 일신이 편할 것이니, 부디 잊지 마옵소서. 소녀는 지하에 가서 어머니 혼신이나 뵈옵고, 이런 말씀이나 낱말이 여쭙고, 만일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하며 부친을 돌아보고 눈물이 비 오듯 하여 옷깃을 적시거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뉘 아니 슬퍼하며 뉘 아니 눈물을 흘리리오.

\* 기세(棄世): 옷어른이 돌아가심을 이르는 말.

\* 대간인(大姦人): 매우 간악한 사람.

- 작자 미상, 「김인향전」 -

34.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전기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인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인향전」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계모를 둘러싼 가족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혈연관계에서 비롯된 가족들 간의 친밀성과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권위적인 위계질서 그리고 비혈연관계에서 비롯된 가족들 간의 배타성과 이기심 및 위장된 윤리가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 ① 정씨가 인향과 인함을 뒷방에 가둔 것에는 비혈연관계의 배타성이 나타난다.
- ② 인형이 인향의 구멍을 간절히 청원하는 것에는 혈연관계의 친밀성이 드러난다.
- ③ 인향이 좌수의 결정을 따르는 모습은 혈연관계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정씨가 인향을 비난하며 언급한 효는 비혈연관계에서 나타나는 위장된 윤리이다.
- ⑤ 인형이 정씨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비혈연관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36. [A]와 [B]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B]에서는 다른 인물을 격려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다른 인물을 옹호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신의 심정에 대해 토로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처지를 염려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항변하고 있고, [B]에서는 다른 인물의 안위를 부탁하고 있다.

37. <보기>는 ㉠에 대한 인향의 반응이다. 사건의 흐름을 고려할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이라더니, 내가 뜻밖에 이런 큰일을 당하는구나.”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② 유구무언(有口無言)
- ③ 자승자박(自繩自縛)                      ④ 좌고우면(左顧右盼)
- ⑤ 청천벽력(靑天霹靂)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홀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 금린어: 상성한 물고기.
- \* 역군은이샀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 \* 홀리: 흐르도록.
- \*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 \*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줄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뉘 닫으며 떨어진 꽃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不足)하니 내일(來日)이라 유여(有餘)하랴.

— 송순, 「면앙정가(倅仰亭歌)」—

- \*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 \*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 \* 안저: 눈 아래.
- \* 낮브거니: 부족하니.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호사시」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군.
- ② 각 수 중장의 ‘이 몸이 ~해움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각 수 중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40.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마을이 인민군 치하가 되자 형술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인다. 인민군이 퇴각하자 형술의 죽마고우였던 을석은 형술 일행을 대나무밭에 숨겨주게 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극도로 두려움을 느꼈던 을석은 그들의 탈출 계획을 돕기로 하지만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순간, 죽은 듯 방바닥에 엎디어 있던 을석의 몸이 움찔했다. 잠결에 멀리서 수상한 소음이 전해져온 것도 같았다. 그는 바짝 귀를 모았다.

㉠ **척척척척**. **척척척**. 고갯길 쪽이었다. 마치 누가 톱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리는 무서운 속도로 벌써 고개를 다 내려와 마을에 이르는 한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척척척척**. 발소리. 어지러운 발소리였다. 아마 수십 명은 넘으리라. 휘리릭릭. 빠이. 빠익. 숨넘어가듯 뭐라 외쳐대는 확성기 소리. 소리.

을석이 펄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허리를 으스스려라 휘감는 팔이 있었다.

“안 된다! 어딜 나갈라고 그러냐!”

“놔요. 이거 놓으랑게요.”

“뭣이야? 못 간다. 못 가!”

그녀의 양상한 팔뚝은 믿기 어려울 만큼 완강한 힘으로 아들의 허리를 그러잡았다.

발소리는 어느새 집 옆으로 난 발뚨길을 어지럽게 오르고 있었다. 바로 대나무 밭으로 오르는 길이었다.

“안 되라우. 형술이가 죽어요.”

아들이 몸을 뒤틀었다. 그 바람에 둘의 몸이 한테 엉켜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래도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늦었다. 이미 늦었어..... 이놈아.”

“어, 어무니.....”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다. 끈적한 울음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뚝뚝이가 뚝고 있는 아들의 작은 어깨 위로 겹쳐졌다.**

“이놈아. 내가 했다. 죄다 내가 한 일이야. 내, 처음부터 눈치 보았으리라. 그래도 설마설마 했더니, 아이고 끔찍스러운 거. 아무리 철없는 아그들이라고..... 아까 너 잠든 틈에 몰래 지서에 갔다 왔었으리라. 그저 무턱대고 빌었어야. 너야 무신 죄가 있겠느냐고, 인자 열여섯 살짜리 어린 것이 빨갱이가 뭔지나 알기나 하겠냐고, 그저 몸을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밖에 없잖으냐고, 그런게 이렇게 내가 대신 와서 빨갱이 숨은 자리를 신고해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짹짹 빌고 애원을 했어야.”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껴안고 뉘드리처럼 되뇌고 있었다.

㉡ **빠익**.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 빠이익. 너희들은 완전 포위..... 빠이이 총을 버리고 순순히.....

‘을석아 미안하다야. 무담씨 나 때문에’ 비시시 형술이 웃고 있었다. 을석은 **손바닥으로 두 귀를 파악 틀어막았다.**

아니었다. 을석은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 어두운 방 한쪽에서 그의 숨소리를 헤아리고 있던 어머니가 조심조심 방문을 열고 나간 것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선 그 발소리가 캄캄한 고갯길을 급히 넘어간 것도 그는 모조리 환하게 알고 있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아까처럼 한껏 소리죽여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는 양**, 조용히 드러누운 채 어머니의 옷자락에 배어 있는 풀냄새와 눅눅한 습기를 코끝으로 가려내고 있었던 거였다. 무엇이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듯 누워 있게 한 것일까.

- 다시 한번 경고한다. 뻘이.....  
‘나한테는 인자 고향도 없어져버렸다. 내 손으로 찍인 죄 없는 사람만 해도 몇 명이간다’

그때였다. 대밭 쪽에서부터 몇 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들려왔고 기다렸다는 듯 길 아래쪽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토해내는 발사음이 새벽하늘을 갈가리 찢어대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낙일도(落日島) 땅덩어리가 한꺼번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어마어마한 총성이었다.

< 중략 >

또 바람이 방문을 때렸다. 그러자 정말 누군가가 문밖에서 그리고 있는 양 문고리가 두어 번 달그락거렸다. 얼핏, 아들의 눈알이 부딪들을 치듯 파아랗게 빛났다. 벌떡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자마자 문고리를 뚫었다. 그녀가 소스라쳐 팔을 뻗었지만 이미 아들은 방문을 열고 있었다. 쉬이잇. 바람이 왁자하니 방안으로 몰려들어왔다. 펄럭, 하고 호롱불이 꺼졌다.

아무도 없었다. 허영계 눈 덮인 마당이 드러났다.  
“울석아이. 아그야!”

노모가 방바닥에 배를 밀며 문턱으로 기어나오려 애를 썼다.

아들은 맨발로 토방에 내려섰다. 눈이었다. 눈이 내려쌓이고 있었다. 마당에도 담 너머 밭에도 재 너머 앞산 마루에도 하얗게 덮이고 있었다. 온 낙일도가 눈부시게 하얀 수의(壽衣)에 싸여 어둠 속에 싸늘하게 누워 있고, 그 위를 칼날 세운 광포한 바람이 눈송이를 더불고 제멋대로 치달리고 있었다. 아들은 눈 깔린 마당을 맨발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사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아무도 없었다. 허허한 밤 저 편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의 형체 하나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여! 그거이 참말로 아니여어. 내가 죽인 거이 아니여어.”

느닷없이 아들은 미친 듯 고향을 질러댔다. 그때였다. 그는 똑똑히 보았다. 바람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한결같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밤하늘 저편으로부터 하얗게 옷자락을 너울거리며 흐르듯, 가볍게 떠오르고 있었다.

아들은 머리 위로 두 팔을 활짝 펴들었다. 흡사 그들을 맞아 안기기가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팔을 펴든 채 아들은 골목을 돌아서더니 이윽고 대나무 숲을 향해 눈 덮인 밭둑을 휘적휘적 걸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 임철우, 「뒤안에는 바람 소리」 -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전쟁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인물의 희생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 이로 인해 그는 자기만의 의식 세계에 빠져 주변 상황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정신적 상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① ‘울석’이 울고 있을 때 ‘그녀의 몸뚱이가 떨고 있는 아들의 작은 어깨 위로 겹쳐’지는 것으로 보아 인물이 받은 정신적인 상처가 치유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울석’이 ‘손바닥으로 두 귀를 틀어막’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인물의 희생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인물이 괴로워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군.
- ③ ‘울석’이 고갯길을 넘어갔다 돌아온 어머니에 대해 ‘곤히 잠들어 있는 양’ 모른 척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의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인물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군.
- ④ ‘울석’이 ‘문고리가 두어 번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인물이 자기만의 의식세계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울석’이 ‘내가 죽인 거이 아니여어’라고 고향을 지르는 것으로 보아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1. ㉠과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낸다.
- ③ 인물 간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 ④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한다.
- ⑤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임을 암시한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닫힌 공간에 속해 있던 주인공이 이곳을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서사 전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         |
|---------|---------|
| 새벽      | 밤       |
| A: 방 내부 | B: 방 외부 |
| C: 방 내부 | D: 방 외부 |

- ① A에서 B로 주인공이 이동하려는 시도는 다른 인물에 의해 좌절된다.
- ② A와 C에서 주인공은 열린 공간으로 이동하려 한다.
- ③ B의 상황 때문에 주인공은 A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못한다.
- ④ C에 있던 주인공은 미리 계획했던 대로 D로 이동한다.
- ⑤ D에서 주인공은 B에 있던 인물들을 떠올린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탐화봉접(探花蜂蝶)이란 말이 있듯이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 다닌다는 면에서 같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벌과 나비처럼 대립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벌은 꽃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간다. 그것들은 가능하다면 최단거리의 일직선을 택해 날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비는 그렇지 않다. 나비는 곧장 꽃을 향해서 나는 법이 없다. 그것들은 위로 아래로 혹은 좌우로 변화무쌍한 곡선을 그린다.

벌이 꽃을 향해서 행진을 한다고 한다면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춘다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꿀을 따려는 목적은 다 같아도 이렇게 그 방법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길로 갈라져 있다. 꿀을 따기 위해 일직선으로 난다는 것은 벌의 근면성을 상징한다. 한눈을 팔지 않는다. 오직 벌이 그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꿀을 따오기 위한 '노동' 속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향해 날아가는 벌은 공장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하늘하늘 날면서 꽃의 주변을 맴도는 나비는 노동이나 근면보다는 쾌락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꿀을 따는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기보다는, 꽃 그 자체와 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같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는 서로 다르다. 꽃 그리고 꿀. 언어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다. 일상적인 자연 언어나 과학적인 '메타' 언어들은 별처럼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시인의 언어는 나비처럼 복잡한 곡선을 긋고 움직인다.

빵을 굽는 사람이 ㉠빳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말의 기호는 뚜렷한 코드에 실려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빳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빵이면서 동시에 빵이 아니라 마치 예수의 말처럼 그것은 육체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뜻할 수도 있다. 시인의 언어는 코드에서 이탈하고 또 변칙을 일으키면서 메시지 주변을 맴돈다. 어느 때는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나래의 움직임 자체가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비록 나비가 먼 길로 이탈하고, 또 오랫동안 허공에서 맴돈다 할지라도 벌과 다름없이 결국엔 꽃에 가 앉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목적인 꿀을 얻는다는 것이다. 벌은 규율이나 조직력, 자기 희생의 가혹한 집단적인 힘-이를테면 노동을 통해서만 꿀을 얻을 수 있지만, 나비는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쁨 속에서 그 꿀을 획득한다. 꿀벌에게 있어서 꿀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나비에게 있어서는 설령 꿀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춤'만은 남는다.

즉, 나비는 그 자체가 꽃을 닮은 존재다. 꿀을 닮은 존재다. 그러나 벌에게 있어 꽃과 꿀은 단지 욕망의 목적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같은 독침이다.

시인들은 '벌의 언어'가 아니라 '나비의 언어'로 이 삶의 의미를 따내야만 한다.

- 이어령,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 -

4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삶을 관찰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에 겪은 일을 떠올리며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빗대어 변화된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옛 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5. ㉠과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벌의 언어, ㉡은 나비의 언어와 각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과 달리 ㉡은 뚜렷한 코드에서 변칙을 일으키게 되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군.
- ③ ㉠과 달리 ㉠은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자기 표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군.
- ④ ㉠과 달리 ㉠은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자연 언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과 ㉡ 모두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